

“공항 자회사 노조, 국민 볼모 정치 파업” vs “처우 개선 절박”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1700명 15개 공항서 첫 합동 총파업

전국 15개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19일 사상 첫 합동 총파업에 돌입했다. 17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파업은 하루 일정으로 마무리됐으나, 노조가 추석 연휴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항공 대혼잡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일 공항은 대체 인력 투입으로 큰 불편은 없었지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여객 서비스 차질과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전국공항노동조합)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4조 2교대 전환, 인력 총원, 노동시간 단축, 불공정 계약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경고성 성격이 강하다”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추석 연휴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엇갈린 시민들의 시선

실제 이날 공항 이용객들은 뚜렷한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인천공항을 찾은 한 여객은 “화장실이나 주차장 상태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파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환경미화 대체인력과 안전인력 등을 긴급 투입해 공백을 메웠다.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다. 직장인 김모 씨(42)는 “청년 노동자가 야간 근무 중 사망한 사건도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근무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행객 박 모 씨(62)는 “노조가 국민을 볼모로 노란봉투봉 등 정치 일정에 맞춰 파업을 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은 “노사 문제를 자회사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모회사를 상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한 공항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체인력 투입으로 공항 이용 불편은 없어

공항 측 “추석 대혼잡 대비 비상체제 가동”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 노조 “안전한 일터 위한 절박한 목소리”

노조는 파업 배경으로 잇따른 사망 사고를 꼽는다.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야간 근무 중 사망했고, 7월에는 제주공항 환경미화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공항을 위한 우리 공항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공항

운영사와 자회사가 외면한다면 공항 노동자의 선택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도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10월 1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며, 19일 하루 파업보다 더 강력하게 공항을 멈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 공항 측 “추석 대혼잡 대비, 비상체제 가동”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즉각 비상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인천공항공사

는 정부·항공사·자회사 등과 함께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추석 연휴 기간 하루 20만 명 이상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대체인력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전국 14개 지방공항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하고 대체인력 투입으로 운영 차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자회사 노동자 파업으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항공과 여객 서비스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든 역할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6~28일 서울서 전남 직거래장터 큰잔치

배·무·화과·한우·김 등 200여개 전남 우수농수특산물 판매

전라남도는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시 노원구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근린공원에서 대규모 직거래장터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전남 22개 시군이 추천한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배, 무·화과, 멜론, 한우, 김, 굴비, 전복 등 지역 대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200여 개의 품목을 선보인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해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전남의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고, 생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개장식에는 생생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전남 농수축산물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박지현 등 유명가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27일에는 5만 원 이상 구매자 200명을 대상으로 김치대전을 진행한다. 28일에는 농수산물을 과격적으로 할인하는 경매 이벤트 등이 펼쳐지며, 5만 원 이상 구매자 대상 토크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전남 전통주·식품명인·청년농업, 귀농귀촌·브랜드쌀 등 홍보판에서는 전통주 시음, 갖지은 밥, 김치, 김 시식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장터 방문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판매관을 품목별(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분류·배치해 구매 동선을 간소화하고,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5km 이내 퀵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서울 시민들에게 전남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대목을 맞아 전남 으뜸 농수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번 직거래장터 이후에도 공식 온라인 쇼플인 ‘남도장터’와 연계해 우수 농수축산물을 연중 판매하고,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신규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채일 기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해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41%에 달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3420억원이었다.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 체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 체불액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

올해 1~7월 임금체불 1조3420억... 41%는 퇴직금 체불액

輿박정 “퇴직연금 도입 시 지급 보장... 체불위험 차단해야”

다.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2024년 8299억원 이었다. 올해 7월까지의 5516억원으로, 이미 2022년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 역시 ▲2022년 5만3821명 ▲2023년 6만376명

2024년 6만6993명 ▲2025년 1~7월 3만 956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퇴직금은 임금체불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aT, 전국 인증매장 48곳서 ‘추석 직거래 할인 장터’ 연다

10월 17일까지 진행... 물가 안정·농가 소득 기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추석을 맞아 전국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9일 aT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공사가 지원하는 전국 직거래장터 16곳과 우수 직거래 인증 직매장 32곳 등 총 48곳을 중심으로 10월17일까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사과·배·포도·정유·잡곡·햄살 등 명절 성수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할인 판매가 이뤄지며, 다양한 선물 세트와 햇과일, 제수용품 등 주요 품목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시식·전통놀이·체험·공연·음모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과천시 바로마켓에서는 전통놀이 체험이 열리며,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증정하는 행사 등이 펼쳐진다.

aT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추석을 맞아 추진하는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상세한 일정 등은 지역농산물 종합정보누리집 ‘바로정보’(포털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